



박상은

안양병원 진료부원장  
신장내과 과장

**생**애 처음있는 평양방문을 앞두고 잠을 설쳤다. 이번 여행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한 국전쟁과 휴전협정이 맺어진 50년대에 이 땅에 태어나 40여년을 분단의 조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세계 곳곳을 방문하면서도 유독 갈 수 없었던 땅,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나라,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친척인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다.

드디어 고려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160석 러시아제 여객기에 질지않은 화장에 깔끔한 복장을 한 복측 여승무원들이 안내를 해주었고 소박하면서도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다. 왼편 가슴에 단 뺏지가 이제는 그리 낯설지가 않았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말 대신에 “결상띠를 매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화장실 대신에 위생실이라고 적혀있고 영어로는 단지 “PUSH”라고 만 표기되어 있었다.

이제 얼마있지 않아 이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될 것이다. 나의 평생에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나의 남은 생애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얼마만한 날들을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 볼 수 있을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루빨리 그날을 앞당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아, 드디어 평양이다. 우리 일행은 마중나온 아태 민화협의 김부장의 안내로 귀빈실을 통해 입국수속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은 아래층의 일반실에서 함께 찾아야 하기에 가장 젊은 나와 박교수가 집 찾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귀빈실과는 달리 아비규환이었다. 줄이 소용없었고 먼저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 더욱이 절전으로 컴컴한 데다가 30분 정도 정전이 되는 바람에 한참을 기다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몸은 불편하였지만 북한의 여러 사정을 이해하는데 요긴한 경험이었다. 복측의 김부장과 홍동무는 우리를 승합차에 태우고 먼저 김일성 동상으로

안내했다. 세계에서 개인 동상으로는 가장 크다고 하며, 모든 평양 방문객들이 예외없이 먼저 둘러서 참배해야 하는 곳이라는 안내를 들으며 바라본 동상은 황금도색의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안내원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령님

## 닷새간의 평양체험

게 참배”라는 구호에 안내원들과 북측일행은 90도로 절하였다.

목란식당에서 민화협 김부장이 주관하는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여 웅숭한 대접을 받았다. 두부와 지짐요리, 돌곱장 등 북녘의 전문 한식요리가 나왔고 그리 맵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북한김치가 입맛을 돋구었다. 우리는 사투리아귀를 시작으로 한글의 뛰어남에 대해, 나아가 남북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고, 보건의료협력 방안에 대하여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호, 호상 간에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하였다. 함께 웃으며 얘기하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 형제임을 실감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마침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라 내가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니 굳이 가라오케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하여 “화면영상반주노래집”에서 자리를 함께 하였다. 우리는 남한의 노래를 무반주로 부르고 북측의 김동무와 홍동무는 임진강, 심장에 남는 사랑, 어머니 등의 북녘노래들을 불렀다. 비록 노래는 모르지만 가사만큼은 가슴에 와 닿았다. 100여 곡 수록된 조선음악 CD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반갑습니다’, ‘아침이슬’, ‘동무생각’, ‘고향의 봄’ 등이었는데 남북이 어우러져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렇게 평양의 첫날 밤은 저물어갔다. 중앙 공급식 난방이 가동되지 않아 이동식 전기난로를 틀고 눕긴 하였지만 평양의 잠자리는 추웠다.

전차 지나가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평양 시내임에도 아파트마다 닭장이 있어 닭을 키워 계란을 받아 먹는다고 한다. 어려운 식량 난 속에서도 영양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된다.



▲ 평양숙소였던 보통강 호텔 앞에서 동료의사와 함께.

평양 제1 인민병원을 가기 위해 평양 시가지로 들어섰다. 전차 두 대를 연결하여 함께 운행하고 있고 궤도버스, 2층버스도 볼 수 있었으며 벤츠 승용차는 험사리 만날 수 있었다. 10차선의 광복로는 80Km로 달릴 수 있었고, 교차로에는 어린 여순경들이 절도있게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였고, 간혹 남자 경찰들이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평양의 건물들은 대부분 고층의 아파트들로서 1층은 대개 식당이나 다른 상점으로 사용되었고, 가는 곳마다 붉은 글씨의 현수막들이 눈에 띄었다. 자주 볼 수 있었던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행성우에 살아남을 자리 없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말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섬찍한 구호도 있지만 마음에 와 닿는 구호도 눈에 띈다. 우리의 잣대로만 바라보지 말고 50년간 살아오고 지탱해온 그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북한의 의료지원에 관해 본격적인 보건의료협력회의가 시작되었다. 북측에서는 보건성의 치료위생부장인 장부장, 조선의학협회의 부회장이 나왔다. 그동안 한민족복지재단이 벌인 지원사업에 대해 북측이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올 한해만도 총 780만 달러에 해당되는 의료품이 전달되었다. 특히 250만 소아들을 위한 구충제의 지속적인 지원, 어린이 종합감기약, 영양제시럽 공급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았고, 의료장비의 지원에 관해서도 요청하였고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리 일행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 평양 제1병원 외에도 이 두 병원을 돌아보기로 하고 북측 관계자와 함께 병원방문에 나섰다. 평양 제1병원은 개신문 바로 옆의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이 편리해 인민들이 가장 손쉽게 드나드는 도급 종합병원이다. 하지만 소아과와 병동, 검



▲ 노동당 창설 55주년 카드섹션의 마지막 장면. 독도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실을 둘러본 우리는 열악한 의료현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하지만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북측 의료진들의 열정과 더 나은 의료를 베풀고 싶어하는 진심어린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다. 둘러본 의료현황을 여기에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으며, 맥주병을 소독해 링게르병으로 대신 사용하고 일회용 거즈와 주사기 등 모든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생략하고자 한다. 이미 한민족복지재단이 보낸 침대와 담요는 잘 사용하고 있었고, 심전도를 비롯한 의료장비도 잘 활용되고 있었지만 몇몇 장비들은 사용법을 모르거나 시약이 없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웠다. 애플런스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이 도착되어 있음도 확인되었고 구충제도 도착된 상태에서

사용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환자는 전국에서 몰려오지만 각 도급 종합병원 의사의 추천을 받아야 올 수 있는 철저한 의료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비는 전액 무상이다. 평양의대병원은 경쟁대상이 없었으나 15년전 김만유병원이 들어서면서 주요 장비와 교수진이 상부지시로 그곳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까지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장수술만 하더라도 15년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책을 보며 연구하여 간단한 수술부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인공신장실은 아예 없었으며 김만유병원의 두 대의 투석기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북한에서의 혈액투석, 복막투석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부전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북측 의사들의 표정에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평양의대병원에 인공신장센타를 어떻게든 마련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우리 일행은 올브라이트 미국무성장관이 보고 녀을 잃었다는 노동당창설 55주년 기념 매스게임을 관람하기 위해 5.1 경기장으로 향했다. 외국인은 60달러를 내고 들어간다는 말에 망설였지만 아태 초

참자들이 까닭에 우리일행은 옆문을 통해 주빈석으로 안내되었다. 15만 관람석이 거의 차있었고, 2만명의 카드섹션 출연진들은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막바지 연습을 하고 있었고, 8만 각종 행사출연진들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자의 인사말에 이어 카드섹션을 배경으로 넓은 종합운동장은 화려한 색깔과 그림, 음악과 환호성으로 우리의 눈을 빼앗기 시작했다. 컴퓨터인간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듯,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동작을 연출해내고 있었다. 확대해서 바라본 그들의 얼굴표정은 일부 무표정이긴 하였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어떤 사명감과 성취감을 맛보는 흥분된 모습이었다. 인상적인 장면은 김정숙타아소의 아이들의 함성, 인간포탄, 인간낙하산, 미사일발사 장면 등이었으며 카드섹션으로 보여준 붉은색 구호는 섬찍한 생각과 아울러 그들의 깊은 사상적 무장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은 통일조국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독도를 분명히 표시한 점이었다. 통일강성대국이라는 구호아래 10만의 출연진과 10만여의 관람객들은 환호를 보내며 하나가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묘향산과 백두산은 통일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볼 수 있지만 이 10만 매스게임은 어쩌면 통일 이후에는 볼 수 없는 무형문화라는 생각이 들며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리라 마음먹었다.



▲ 보통강 호텔 최고급 객실 내부. 오디오 시설 대신 카세트가 비치되어 있다.

북한의 지하철을 타 보았다. 역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족히 100m는 넘어 보였다. 역은 넓은 홀로 양 옆으로 기차가 지나가고 화려한 상층리에 등을 달았으며 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있었다. 우리 좌석 맞은 편으로 여학생 여러 명이 앉아 있었는데 재잘거리며 대화하는 모습이 남한의 우리 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이었다. 요금은 10전, 우리 돈으로 50원 정도였으며 중간에 갈아타더라도 추가 부담은 없는 단일요금체계였다.

대성 수출품판매센터에서 간단한 쇼핑을 하였다. 사탕과 개성 은단, 담배, 그리고 백두산 들쭉술을 비롯한 주류, 그 외 몇 가지 의류와 그림, 보석가공품이 전부였다. 아직 상품은 국제경쟁력을 얻기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상품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유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평양상공을 날아오르며 바라다 보이는 평양은 가을단풍으로 너무 아름다웠다.

문득 북한의 모습이 어쩌면 이 가을단풍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현란한 가을단풍의 정경들..... 하지만 조금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한 나무, 한 나무, 가지가지마다 달려있는 잎새는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지 않은가? 단풍의 아름다움 이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가을의 낙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평양거리와 병원빌딩은 아름다웠지만 내부의 설비와 의사, 환자의 고통은 아름다움에 묻혀 우리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10만 매스게임과 카드섹션은 세계최고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여 주었지만 망원경으로 클로즈업한 북한소년소녀의 얼굴 빛과 동작 하나하나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통과 인내를 엿보게 한다. 그런 상념을 하며 다시 가을단풍을 바라보니 웬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